

다니엘서 - 제190번

예언적 고조: 파니움 전투와 일요일 법령의 서막을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4-20

지난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문단으로 끝났다: “죄악이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닥쳐올 것이다. 끝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세상에 압도적인 뜻밖의 일로 닥쳐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 ‘죄악’이 그 한계에 이르는 때는 유예 기간의 잔이 가득 찰 때이며, 미국의 경우 그 한계는 일요일법이 제정될 때 도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오신 바로 그 일은 율법을 높이고, 피조된 세계들과 하늘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그의 율법은 변경될 필요가 없음을 보이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사탄이 시작했던 그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려는 일을 이어 가려고 준비된 사탄의 오른팔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계는 교황권의 자식, 곧 일요일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노력을 공인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길러 왔고, 개신교가 로마 권세에 교제의 손을 내밀 때까지 계속 길러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반대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상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인류의 패역을 오래 참아 오셨고, 그들을 자기께로 이끄시려 애써 오셨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의 분량을 채우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때가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은 민족들에 대하여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늘의 책들에는 그들을 거슬러 기록된 수치가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 주의 첫째 날을 범하는 일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제정될 때, 그들의 잔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6년 3월 9일.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은 자기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단은 “죄악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곧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큰 지진의 시각”으로 불리는 일요일 법령 때 “그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며, 그것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일요일 법령 때 임한다. 그 시점에 “끝이 매우 가깝고”, 그것은 “압도적인 놀라움”으로 온다.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에게도 은혜의 시기의 잔이 가득 찬다. 이는 그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그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갑절을 갚아 주라. 그가 채운 잔에도 그에게 갑절을 채워 주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 역사는 일요일 법령에서 개시되며, 교황권이 “크게 분노하여 나아가 멀하고, 많은 자들을 완전히 없애 버릴” 상징적인 시기를 가리킨다. 이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권을 격분하게 하는 것은 “동방과 북방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끝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요일 법령부터 교황권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첫 단계가 전개된다. 그 뒤를 둘째 단계인 "일곱 마지막 재앙"이 잇고, 마침내 천년기 끝에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이 있다.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역사는 전쟁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중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상하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다. 전쟁이 있으며 전쟁의 소문도 있다. 민족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사건들이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날을 가져오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다. 그러나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교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사방의 바람이 불들려 있다. 그때 지상의 권세들이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의 세력을 결집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봉사, 50, 51.

하나님께서서는 14만 4천을 인치신 다음 바벨론에서 자신의 다른 양 떼를 불러내시며, 그 다른 양 떼도 14만 4천과 대조되는 '큰 무리'로 묘사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앞선 인용에서 보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네 바람이 불들려 있다"는 점이다. 일요일 법령 때 14만 4천은 인침을 받았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양 떼의 마지막 사람까지 인을 받을 때까지는 네 바람이 완전히 풀려나지 않는다.

"열방이 이제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면 일어나 보복의 옷을 입으시고, 그때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여질 것이다. 나는 네 천사가 예수님의 성소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네 바람을 불들고 있을 것을 보았고, 그 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올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49년 8월 1일.

우리가 "문턱에 서 있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하고, 민족들이 "이미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파니움은 다니엘서 11장 15절의 "기이하고 사건이 많은 역사"를 가리키며, 그것이 16절(일요일 법령)로 이어지고 그것을 도입한다. 그곳에서 모든 "지상의 권세"가 마지막 대전투를 위해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키는 "전면적 교전"이 시작된다. 그 "마지막 대전투"는 제3차 세계대전이며, 기원전 31년의 악티움 해전으로 표상된다.

다니엘 11장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40절의 숨은 역사를 나타낸다. 40절은 1798년부터 1989년까지의 미국과 재림운동의 역사를 제시한다. 그 후로는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인 미국의 종말과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토하여 버림을 당하는 사건을 말하는 41절이 나올 때까지 침묵한다. 그 41절은 일요일법이며, 또한 16절이기도 하다. 1절과 2절은 1989년의 끝의 때를 밝히고, 그 시점부터 사탄적 세계주의자들을 격동시키는 여섯 번째 부유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대통령들을 지목한다. 2절은 역사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끌고, 이어 3절은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인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열 왕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들은 곧 닥칠 일요일법 위기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교황권에 넘겨 준다.

10절은 1989년을 종말의 때로 규정하며 마무리되고, 11절과 12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시하여 푸틴과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로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임을 밝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트럼프의 첫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한 해 전이었다. 이 절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여덟 번째 대통령(곧 그 일곱에 속한 자)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선거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그의 (정치적) 부활로 이어진다. 13절은 15절에서 파니움에서의 승리에 앞서 트럼프가 겪는 정치적 투쟁을 밝히고, 14절은 파니움 전투 동안 15절에서 그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역사, 곧 죄의 사람이 정치사에 공공연히 침입하기 시작하는 역사를 다룬다. 교황권이 예언사에 침입할 때, 두로의 창녀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 환상이 확립된다.

기원전 200년 파니움에서의 승리 뒤에는, 기원전 167년 모딘('항의'를 의미)에서 일어난 마카비의 '반란'이라는 이정표가 뒤따랐다.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는 성전을 재봉헌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망하여 그리스 종교적 영향에 맞선 마카비 투쟁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 사이에는 동맹 체결 작업이 시작되어 마무리되었다. 예언적 이정표들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스모네 왕조 안에서 반복된다.

23절의 로마와의 동맹은 직접적인 언급이지만, 15절에서는 기원전 167년, 164년, 161년, 158년의 네 가지 마카베오 이정표가 '동맹'의 역사가 그 절에 적용될 때에만 보인다. 16절에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는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내전에 직면했으며, 서로 대립하던 두 파벌은 모두 하스몬 왕조의 분파였다. 따라서 마카베오도 16절의 역사에 포함된다.

20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21절과 22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하스몬 왕조의 계열과 연결된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문자적 영화로운 땅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고 자처했지만 배도한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의 대표가 아니었던 하나님께 속한 유다의 배도한 백성을 지적한다.

화이트 여사는 "다니엘서 11장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하스몬 왕조로 대표되는 예언의 계통은, 대통령들 가운데 부유함에서 여섯 번째로 꼽히는 대통령이 나선 세 번째 대선 캠페인에서 시작되는, 배도한 개신교의 뿔을 보여 주는 예언의 계통을 나타낸다. 트럼프는 대선에 세 번 출마하며, 첫 번째와 마지막 출마에서는 승리하지만, 두 번째에는 13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반역이 2020년의 도난당한 선거를 가리킨다. 그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2020년을 볼 수 있고, 다른 부류는 눈이 멀어 있다. 이것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가운데 재림교인들에게 은혜의 시기 종결에 앞서 임하는 큰 시험을 상징한다.

이미 준비가 진전되고 있으며,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운동들이 진행 중이다. 지구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날들에 관하여 예언이 예고한 것을 성취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9년 4월 23일.

전개되고 있는 "준비들", 지금 "진행 중"인 "움직임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사건들", 또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예언의 예측을 성취하게 될" 것들은, 다니엘서 11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하스모네 왕조의 이정표들을 포함한다.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는 배도한 하스모네 왕조는, 신세계질서의 각성주의에 맞서 자신의 MAGA주의를

부추기고 동원하는 제6대이자 제8대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증언 속에 엮여 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트럼프의 증언은 2020년까지 미치며, 그의 선거운동과 첫 임기를 포함한다. 이어 13-15절은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거운동, 승리, 그리고 마지막 임기를 가리킨다. 두 임기 사이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이 공화당의 뿔이 죽임을 당해 길거리에 사흘 반 동안 죽은 채로 놓여 있었다고 밝힌다. 이러한 트럼프의 역사적 흐름은 다니엘서 11장에서 그의 대통령직의 시작과 끝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도널드 트럼프의 증언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두 책 모두에 있으며, 두 책 모두에서 11장에 위치해 있다.

그 세 개의 부분적 줄기들을 함께 모으면 트럼프의 완전한 역사가 제6대이자 제8대 대통령으로서임이 드러나며, 그것들은 "진리"의 표식을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것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며,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부분"과 일치하는 하나의 역사적 줄기를 형성한다.

다니엘서의 그 부분은 은혜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리는 것이며,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기별의 한 요소이다. 그러나 2020년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데 관한 예언적 이정표들을 보려면 영적인 20/20 시력이 필요하다.

다니엘서 11장 15절은 파니움 전투와 하스몬 왕조의 계보를 나타내며, 이는 실제 전투로 성취되었고, 따라서 배교한 개신교의 종교와 글로벌리스트의 뉴에이지 종교 사이의 영적 전쟁을 예언적으로 상징한다. 기원전 200년에 일어난 파니움 전투는 공화주의 뿔의 전투를 상징하고, 마카베오 반란이 보여 주는 투쟁은 배교한 개신교의 뿔의 전투를 상징한다. 비록 마카베오의 반란은 기원전 167년에 일어났지만, 예언적으로는 기원전 200년의 공화주의 뿔의 전투와 상응하는데, 예언에서 그 뿔들이 서로의 역사와 평행을 이루기 때문이다.

15절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바로 앞서 있으며 그 법령으로 이어지게 하는 예언적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침의 기별에 담긴 능력이 하나님의 말세 백성에게 영원히 인을 새기는,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의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킨다.

그 진리의 인봉을 떼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십사만 사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분이 15절의 인봉을 떼실 때, 유다 지파의 사자는 자신의 마지막 때의 백성을 파니움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파니움으로 데려가셨을 때, 인침 과정에서 바로 이 점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니움에 서 계셨을 때, 자신의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며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파니움의 전쟁을 특별히 언급하셨다. 예수께서는 파니움 전투가 나타내는 전쟁을 밝혀 주셨다. 파니움 전투는 15절이고, 16절은 악티움 전투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파니움에 서 계셨다.

파니움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땅의 짐승의 배도한 두 뿔, 곧 개신교와 공화주의의 정치적·종교적 투쟁의 역사이다. 그 둘은 2020년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신론적 짐승의 공격을 받았고, 두 뿔이 글로벌리즘의 정치적·종교적 신들과 벌이는

전쟁은 11절부터 16절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2015년에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 2020년의 두 뿔의 죽음, 2023년의 부활, 2022년 11월 15일에 시작된 트럼프의 세 번째 대선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13절부터 15절로 이어진다. 그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에 의해 드러난 역사는 144,000명을 봉인하는 예언적 진리를 나타낸다.

그 진리들은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사건에서 예증되었다. 그 구절들에서 죄의 사람이 두로의 음녀의 노래를 부르며 예언의 역사로 돌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시를 확립하여 그 구절들을 한밤중의 외침의 맥락에 놓는다. 이는 목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눈이 있으나 보지 않고, 귀가 있으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기름"이 없는 미련한 라오디게아 처녀들이다. 그 "기름"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이 풀릴 때 생겨나는 지식의 증가를 말하며, 또한 호세아서에 따르면 지식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패역한 집 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집이니라. 에스겔 12:1, 2.

그가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 6:9, 10.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다. 혹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줄까 하여서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므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 마태복음 13:10-17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힘 있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Matthew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였던 것들을 본 눈은 복되도다.

“그 기별은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일에는 지체가 없어야 한다. 이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마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한 기별이 곧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큰 외침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서 그의 증언을 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437.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